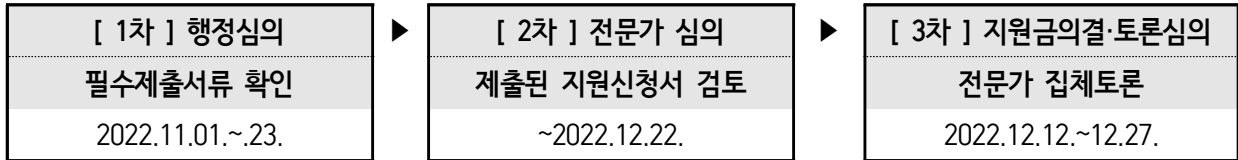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 시각 -

□ 심의일정



□ 심의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장르	심의 분야	심의위원
시각	공예	김승배(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본부장), 신혜정(성신여자대학교 공예과 교수), 전창호(용인예술과학대학교 리빙제품디자인과 교수)
	미디어	유원준(영남대학교 조교수), 이관훈(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큐레이터), 임근혜(아르코미술관 관장), 정은영(작가), 최두은(현대자동차 아트랩장 상무)
	입체	강재현(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 학예실장), 김성우(프라이머리 프랙티스 디렉터), 전효경(리움미술관 큐레이터), 최태만(국민대학교 교수), 한경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부교수)
	평면	맹지영(전시 기획자), 박영근(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신보슬(토탈미술관 책임 큐레이터), 정시우(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안진국(미술평론가)

□ 세부 선정결과

- 지원결정액은 창작지원금과 활동비(정액 3,000,000원) 및 회계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결정액임.

○ A트랙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	202302979	강서현	강서현 개인전, <Macho Me, Macho!>, 서울	14,000,000
2	202300758	곽아람	Where We At(가제)	16,000,000
3	202301350	구자명	구자명 개인전 <모노코크>	18,000,000
4	202302848	권동현X권세정	러브 데스 로봇 시티 휴먼(가제)	15,000,000
5	202300618	김규림	sensing logistics (가제)	15,000,000
6	202302712	김다정	단체전<Custom Axis>(가제)	18,000,000
7	202303581	김두봉	Moment of nature	17,500,000
8	202303046	김맑음	원도우리컨스트럭션	18,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9	202303013	김민조	김민조 개인전 <나는 당신이 신기루인 줄 알았어>	12,000,000
10	202301740	김민채	김민채 개인전 <셰이커 (Shaker)>	16,000,000
11	202304540	김솔이	이름을 가지지 못한 여자들(가제)	15,000,000
12	202300543	김원진	김원진 개인전 <무용한 무용 : Dancing in the thin air>	18,000,000
13	202301433	김재연	김재연 개인전 <무너지고 쌓이는>	12,600,000
14	202301160	김재원	김재원 개인전 <좁은 틈으로 스며들기>	15,000,000
15	202303975	김지민	<Prototype Temple: 가상인물 '아'>	18,000,000
16	202301719	김진희	김진희 개인전	16,000,000
17	202300465	김태연	구멍	18,000,000
18	202300398	김한샘	김한샘 개인전 <화마>	17,400,000
19	202302816	김희재	다시 만난 세계	14,300,000
20	202302917	노혜리	칠	18,000,000
21	202304625	류한솔	류한솔 개인전 <올바디 애플바디 커몬 yo(가제)>	14,700,000
22	202304227	문현정	싸이퍼(Cypher) : 서사와 공진화	17,000,000
23	202303282	민지훈	언더그라운드 랩소디 Underground rhapsody	16,700,000
24	202303968	박성훈	예술창작활동지원-A트랙	17,500,000
25	202301796	박슬기	박슬기 개인전 <zip>	15,000,000
26	202300037	박예림	박시월 개인전 <본적도 없으면서>	16,000,000
27	202300209	박정인	《 박정인개인전 : 글자가글자를떠나고, 소리가소리를떠나, 형태가형태를. 》	18,000,000
28	202302188	서성협	서성협 개인전 <한 번은 들어보았다> (가제)	17,700,000
29	202300663	서인혜	서인혜 개인전 <café Kilimanjaro>	16,000,000
30	202301799	서제만	조류가 화석이 될 때	16,000,000
31	202301909	성시경	성시경 개인전 <긴 생각, 짧은 생각(가제)>	18,000,000
32	202302630	안은경	전통과 현대를 잇다_안은경 개인전 <서울>	18,000,000
33	202303330	염선영	머피엠개인전 <메이크슈프트 : 나는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사물들을 가지런히 배치했다.>	16,000,000
34	202302094	오자현	소리의 소설: 삼켜진 초록 에필로그	13,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35	202302696	오제성	오제성 개인전 <The Motion Sculptures>	18,000,000
36	202301672	유다영	<점자 이미지에서 파생된 타이포 시와 노래, Typo Poems and Songs Derived from Braille Images>	13,900,000
37	202303350	유아연	Fitting Room	18,000,000
38	202302058	유용은	요이개인전 <물의 몸, 그녀의 몸>	15,000,000
39	202300339	유지영	유지영 개인전 《사이-횡단법(Traverse In-between)》	17,000,000
40	202300301	윤일권	Viewpoint of the Printmaker	10,000,000
41	202303775	윤형신	《가름끈걸기》(가제)	15,000,000
42	202303392	은재필	은재필 개인전<아침이오면>	18,000,000
43	202304185	이승일	'이 청년은 행복마저 어울리네.' 부인은 생각했다. (가제)	14,700,000
44	202301861	이재석	이재석x정수정2인전 <The Time between Dogs and Wolves>	18,000,000
45	202301489	이종환	이종환 개인전 <Painting eyes(가제)>	17,000,000
46	202301455	이주영	이주영 개인전 <머리 셋 다리 하나>	15,000,000
47	202300760	이주혁	검은방	18,000,000
48	202302007	이준희	새로운 유형 (NEW TYPE)	18,000,000
49	202302692	이진형	이진형 개인전 <4painting>	16,000,000
50	202300534	이한결	추수 개인전 <우리는 모두 키메라다>	15,000,000
51	202302038	이혁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2	17,000,000
52	202303288	임지현	Spraying	15,000,000
53	202301156	임희재	<Between the Lines (가제)>	16,000,000
54	202302160	장입규	디지털 강해	17,900,000
55	202300533	장한나	돌연변이들의 탄생(가제)	15,000,000
56	202304928	조상은	흰 그림	16,000,000
57	202302523	조소연	원본 없는 판타지	16,000,000
58	202301439	조이습	조이습 개인전 <인사이드 크랙 Inside Craic>	18,000,000
59	202303639	주형준	주형준 개인전 <소원의 모양>	16,000,000
60	202305011	채민우	채민우 개인전 'GRID - possibility of 3D tiles <서울>	18,000,000
61	202302564	최가영	최가영 개인전 <후르츠 FURUTSU>	16,000,000
62	202302030	최은지	출력값에 오류가 있습니다.	12,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63	202300364	최이정	Kishin :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17,400,000
64	202304169	최지원	프로젝트명 Up Down Counter(2023)	18,000,000
65	202300481	허찬미	허찬미 개인전	12,000,000
66	202301364	황민규	황민규 개인전 <After blue>	15,000,000

○ B트랙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	202301266	권도연	권도연 개인전 <한강>	17,400,000
2	202301442	기슬기	기슬기개인전	22,800,000
3	202303453	김동기	숲섬파도	28,000,000
4	202300909	김동현	김동현 개인전 'Vessel but Objet'	24,000,000
5	202304907	김동희	김동희 개인전 <HALL 2>	28,000,000
6	202300173	김수연	<물속의 돌> - 이 단 개인전	28,000,000
7	202300321	김지수	냄새풍경(Smellscape)	28,000,000
8	202300875	나오미	바다의 신_바다를 건너간 신	28,000,000
9	202304532	노은주	노은주 개인전	23,000,000
10	202300661	돈선필	인더스트리얼 미소녀 industrial Bishōjo	28,000,000
11	202301321	무진형제	무진형제 개인전 <삼속(三俗)의 담(談)>	25,500,000
12	202303767	박민하	The Portrait of Missing Time 사라진 시간의 초상화	25,500,000
13	202304266	박성열	박성열 칠예전	26,000,000
14	202300280	손광주	시민 K의 초상	25,500,000
15	202304953	송민정	분위기	25,500,000
16	202302273	신지현	미니어처	26,000,000
17	202300226	신현정	물을 위한 스코어	27,300,000
18	202300882	양소정	양소정 개인전 <In My Mold>	27,000,000
19	202301280	염지희	이런 꿈을 꾸었다	28,000,000
20	202300842	유은순	바틀비의 선택	28,000,000
21	202300359	이민선	Sculpture	21,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22	202300947	이우성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	23,000,000
23	202303144	이유진	비평가 이일과 1970년대 AG(Avant Garde)그룹	28,000,000
24	202304260	이윤희	Palimpsest<서울>	26,000,000
25	202301242	이은새	이은새 개인전 <A Shot of Skull Juice>	23,000,000
26	202303468	이재훈	이재훈 개인전 <Time in a bottle>	28,000,000
27	202300867	이정훈	이정훈 개인전 <고풍공간>	24,000,000
28	202300352	이희준	비계/Scaffolding	28,000,000
29	202300527	정지현	정지현 개인전	28,000,000
30	202302177	조은비	우리의 춤을 뜻밖에 시작하지 (가제)	28,000,000
31	202303950	차혜림	차혜림 개인전 <옐로우키드 #5 (Yellow Kid #5)>	25,000,000
32	202302096	최성임	최성임 개인전-눈을 감아도 보이는 특 특	22,600,000
33	202303187	최수연	최수연 개인전 <그림 회에 그림 화>	20,000,000
34	202303416	최수정	최수정 개인전(0,1_명멸)	28,000,000
35	202303733	최태훈	최태훈 개인전 <가족>	28,000,000
36	202302211	추미림	카오스 콩	22,300,000
37	202303306	한소영	Mr.Conjunction Is Waiting	28,000,000
38	202304868	홍범	홍범 개인전	25,500,000

○ C트랙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	202303705	감민경	감민경 개인전	30,000,000
2	202300065	김옥선	김옥선 개인전-평평한 것들	33,000,000
3	202304084	김유정	김유정 개인전 <이식된 군락지 Transplanted colony>	32,000,000
4	202301961	김지혜	김지평 개인전 <없는 그림>(가제)	33,000,000
5	202301705	김치앤칩스	옵티컬 레일 Optical Rail	33,000,000
6	202301837	김태연	다시짜다 Re-Weave,Re-Think(가제)	28,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7	202302349	김홍석	김홍석 개인전-불완전한 질서 개발(Incomplete Order Development)(가제)	33,000,000
8	202300411	류승환	류승환 개인전 <유기적 생태 순환>	29,000,000
9	202303111	박기진	박기진 개인전 <자국>	31,800,000
10	202303914	박상희	박상희 개인전 <그림에도 영롱한>	30,000,000
11	202303944	박선민	모든 마지막의 도서관 The Library of All Lasts (가제)	21,200,000
12	202303450	백정기	올인원	33,000,000
13	202303918	서용선	서용선개인전 <내이름은빨강(가제)>	23,000,000
14	202300477	신미경	The House of Muse: Performing Museology	33,000,000
15	202302821	신혜림	신혜림 개인전 <시간의 비가 내린다>	28,000,000
16	202302040	연기백	연기백 개인전 <앉음과 일어섬의 상(象)에 대하여, 서울>	33,000,000
17	202302186	옥정호	옥정호 개인전_은유를 상징하기 위한 상징	32,800,000
18	202304119	이정배	이정배 개인전 <의미를 없애는 일>	28,000,000
19	202303974	정명국	정명국 개인전	31,000,000
20	202303953	정재호	정재호 개인전	32,000,000
21	202300993	차승언	<Wall Hangings: 뉴욕1969/서울2023>	28,000,000
22	202303597	최원준	캐피탈 블랙	32,000,000
23	202301585	홍순명	Scape Hybridity	33,000,000

□ 심의총평

□ 공예

○ A트랙

- 작업세계를 형성해나가는 단계의 신청자로 구성된 A트랙의 경우 다양한 분야 및 재료의 융합, 실험성,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범위 확장, 공예재료 탐구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나 실험적이고 물성과 매체를 넘나드는 표현 방식의 흥미로웠습니다. 다수의 신청서가 기획 배경과 내용, 표현 방식, 구성 계획, 예산으로 연계되는 유기적인 연계성과 구체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신청서는 기획배경과 표현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내용이 신청자 본인의 해석으로 표현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작업세계를 형성해나가는 단계의 신청자이니만큼 지원서 작성에서 작업의 주제를 확고히 하고 구성, 예산으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B트랙

- B트랙 신청자는 대체로 작업역량이 우수하고 지원서 내용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인 작업에 대한 개념의 확장성, 공예 재료 범위의 확대 그리고 공예분야에서 재료가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공예기법과 재료의 다양성 등을 통해 본인만의 기법을 구축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하거나 오브제의 조형성을 강조한 프로젝트들의 확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예 발전에 있어 해당 트랙의 작가 층의 양적, 질적 수준과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기존 활동에서의 확장된 연계성 및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합니다.

○ C트랙

- C트랙 신청자의 경우 본인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어 공예의 본질, 공예적 가치 등의 내용을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조형적 특색과 작품의 의미를 대중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한 신청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 미디어

○ A트랙

- 신청자 대다수가 디지털 네이티브인만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감각과 소통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작업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환경적인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SNS나 디지털 매체의 속성을 통해 본인의 언어로 빠르게 전환시켜나가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시의성 있는 주제의식과 기존 예술계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소수자적 주체가 주저 없이 출현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경력이 길지 않은 신청자를 위한 트랙인만큼 리서치의 폭과 깊이 그리고 조형적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과 방법을 드러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트랙의 신청자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기존의 창작 과정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어나가 자신만의 예술관을 확립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B트랙

- 신청자 대다수가 활발하게 활동영역을 펼쳐나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작업 세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전 작업과 어떠한 지점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고, 타 분야와의 결합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당대적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그 주제의 다양성은 작가적 태도와 조건 또는 예술노동, 환경 등에서 삶, 치유, 명상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어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의 창작 언어를 다른 이들과 차별 있게 드러내어 미술의 현장성과 세대를 뛰어넘는 예술적 소통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트랙의 예술인 층이 두터워지고 다양해진 현상이 고무적이었습니다.

○ C트랙

- 이미 작가로서의 주제의식, 방법론, 조형성이 확고한 신청자들로 기존 작품과의 맥락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이와 폭을 넓히는 작업이 다수였습니다. 구체화된 자신의 세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하는지, 작가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얼마나 견고하게 실천해나가는지, 방향성을 드러내는 영역 확장의 가능성과 중견으로서의 무게가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 중 기존 작업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새로운 기대감을 주는 탄탄한 작업 내용의 서술과 확신이 드러나는 신청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원 금액이 높은 트랙인만큼 예산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구성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입체

○ A트랙

- 팬데믹 상황에서의 자신의 상황, 소수자에 대한 주제 및 개인의 관점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사회, 문화, 역사적 현상을 읽으려는 시도가 다수 있어 신청자들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의 경우 일부 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 보다는 표피적 미감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실험을 표방하지만 기존 실험을 조금 변형한 정도에 그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세계를 설명하는 언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있어 사회적 관심사와 본인의 작품을 연결지어주는 지점 및 작품의 개념과 형식의 균형을 고민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B트랙

- 역량이 갖춰진 신청자들이 많은 트랙이었습니다. 현실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주제 의식과 창의적인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신청서가 다수 있었습니다. 특정 매체나 장르 안에서 자신의 좌표감을 찾기 위한 시도와 최근의 경향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언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매체·장르적 고민과 실험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방향성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기존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답습하기도 하여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각자의 조형언어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의 예술인을 위한 트랙인만큼 조각이나 입체의 의미를 실험하고, 자신만의 방법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자신의 작업이 동시대 미술계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C트랙

- 꾸준한 실천과 실험을 거듭해온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며, 그러한 궤적에서 자신의 작업을 보다 심화시키고 주제를 강화·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돋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를테면 보다 풍부한 서사를 위한 리서치의 강화, 재료와 방법론으로의 회귀, 지금까지 이어온 실천과 다음 여정 사이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차원의 시도 등 각자가 나름의 작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작가적 태도와 확고한 예술적 목표를 갖고 작품세계가 잘 드러나고 기존의 작품세계를 보다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지원신청서의 경우 예산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기존의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 평면

○ A트랙

- 활동을 시작하는 예술인, 긴 기간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예술인 등 다양한 신청자가 신청한 트랙이었습니다. 당면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업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며 팬데믹의 영향으로 작업의 소재를 식물이나 자연환경, 가족사나 개인사 혹은 비대면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 온라인 관련 콘텐츠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회화의 평면성에 대한 질문과 탈피라는 주제도 하나의 경향성을 형성해가는 듯 했습니다. 다만 형식실험에 치중되거나 국내외 기성 예술인의 표현방식을 답습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찾고 그것을 예술로 시각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신청서에 작업의 내용을 위한 연구와 고민을 드러낸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B트랙**

- 기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구축해가는 신청서를 통해 신청자들이 본인의 작품세계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계의 문제나 삶에 대한 고민, 젠더,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과 더불어 회화가 가진 형식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업의 밀도와 완성도가 뛰어나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구조에 관한 고민이 녹여진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창작뿐 아니라 창작의 의미와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작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등의 활동역시 드러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체나 주제에만 천착해 있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매체의 다양성 추구도 좋지만 하나에 집중하여 깊이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C트랙**

- 오랜 기간동안 작업을 하며 자신의 작업세계를 구축해 온 만큼 대부분의 신청서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묻어나며 깊이있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동시대적 문제에 고민하는 신청서보다는 작가 개인의 문제의식, 기법에 대한 변화 등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존 개인전과 차별화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흥미로운 발표 형식을 고려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